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성명서</b>		
	보도일시	2019. 7. 3. 수. 배포 즉시	
	담당	백운희 활동가	010-7252-0760
	배포일시	2019. 7. 3. 수.	총 2매 (별첨 0매)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 ▲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
-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교육공무직과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밥을 짓고, 식단을 짜며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원이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이며,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이자, 전문상담사,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사상 최장기간’, ‘최대 연 인원 참여’ 등을 부각하며 급식과 방과 후 돌봄 등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불편할 것이며 나아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을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는 원인과 이유여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없으면 학교 현장에 공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도록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에 대해 평가 절하한 주체와 과정은 어땠는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학습과 교육의 공적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 라면 이번 파업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이다.

적어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시험 기간인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불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이고 누군가의 노동과 돌봄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 노동자들의 되풀이되는 파업이 문제라면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이행해 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관행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미래의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2019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